

종근당 '젤콤' 온 가족 기생충 한번에 잡는 종합구충제

1회 1정 간편한 복용으로 회충·요충·십이지장충 박멸



최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관리가 향상됐지만, 식생활과 생활 습관 등 기생충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. 특히 생선회나 육회, 유기농 채소 등 식품을 통한 감염이 꾸준히 진단돼 수입식품이나 해외에서 유입된 기생충에 의한 감염, 반려동물을 통한 감염 등이 기생충 감염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.

기생충 감염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스스로 확인이 어렵고, 신체접촉이나 옷 등을 통해 주위 사람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해 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.

젤콤은 플루벤다졸(Flubendazole) 성분의 구충제로 회충·요충·편충·십이지장충의 감염과 혼합감염 등 광범위한 치료 효과가 있어 '종합구충제'로 불린다. 인체에 흡수돼 작용하지 않고 장내에 있는 기생충에 직접 작용해 기생충을 죽이는 제품이다. 이 제품은 장 내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에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생충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당(Glucose)의 대사를 억제해 기생충을 자가분해 시키는 작용을 한다. 기생충이 장 내에서 분해돼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, 분변과 함께 배출되므로 안전하고 깔끔한 것이 장점이다.

이 제품은 알약과 현탁액의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돼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어린이나 환자도 복용할 수 있다. 24개월 이상 유·소아부터 복용이 가능하고 2회를 복용해야 하는 알벤다졸 성분 제품과 달리, 12개월 이상의 유·소아부터 복용할 수 있으며 전 연령이 동일하게 1회 1정 혹은 1포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.

취침 전 공복(장에 음식물이 없고, 기생충 활동도 뜸한 잠자기 1시간 전)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하면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도 있다. 매년 계절이 바뀌는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복용한다면 기생충 감염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.

종근당 관계자는 “기생충은 가족 중 한 사람만 갖고 있더라도 온 가족에게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족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며 “종합구충제인 젤콤을 복용하면 기생충으로부터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▼